Variaciones concertantes, Op. 23

- □□

정보

개요
작품: Variaciones concertantes, Op. 23 — Alberto Ginastera (1916–1983)
작곡: 1953년
위촉 ·초연: Asociación Amigos de la Música 위촉. 1953년 6월 2일 Buenos Aires에서 Igor Markevitch 지휘로 초연
헌정: Leonor H. de Caraballo와 Igor Markevitch. Chandos 음반 안내서에 재수록된 작곡가의 헌정문에 근거한다.
장르: 실내 관현악을 위한 변주곡

IMSLP: Hawkes Pocket Scores — Variaciones concertantes 항목

Wikipedia: Alberto Ginastera

첫 주제는 첼로와 하프가 맡고, 마지막에는 악단 전체가 론도풍 종결을 이끈다. 그 사이에 플루트 ·클라리넷 · 비올라와 여러 악기군이 차례로 등장하지만 , 이 곡의 핵심은 독주 악기 목록에만 있지 않다. 한 악기가 제시한 음형과 성격은 다음 악기로 이어지고, 처음의 재료는 다른 음역과 음색을 거쳐 돌아온다. 이러한 구성에서
제목의 ‘협주적 ’ 성격이 드러난다.

Ginastera는 민속 선율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선율과 리듬으로 아르헨티나적 분위기를 만들려 했다고 밝혔다. 이 작품의 변주는 악기별 등장 순서에 그치지 않는다. 주제는 여러 음색을 거치며 넓어지고, 처음의 선율로 돌아오며, 그 과정에서 연주와 해석의 선택도 달라진다.

출판 정보와 자료

작품은 Buenos Aires의 Asociación Amigos de la Música가 의뢰했고, 해당 협회의 오케스트라가 Markevitch의 지휘로 초연했다. Boosey & Hawkes는 1953년 작곡과 초연 정보를, IRCAM은 위촉 및 헌정 정보를 각각 기록한다. Chandos가 공개한 음반 안내서에는 Ginastera가 “깊은 감사와 우정의 표시 ”로 Leonor H. de Caraballo와 Markevitch에게 작품을 바친다는 스페인어 문구가 재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헌정은 단순한 목록상의 추정이 아니라 작곡가의 설명에 근거하지만 , 현재 확인한 것은 안내서에
인쇄된 문구다.

서지상 작곡 연도와 인쇄본의 발행 시기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CiNii는 Hawkes Pocket Scores 판을 대략 1954년으로 목록화한다 . 따라서 작품은 1953년에 작곡되었고 소형 총보는 이듬해 무렵 출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확한 초판 인쇄일이나 판번호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며, 현재 악보의 출판 ·대여는 Boosey & Hawkes 가 맡는다.

소요 시간

기관별 안내 시간은 약 23–25분이다. IRCAM은 23분, Boosey & Hawkes와 St. Louis Symphony는 24분, Los Angeles Philharmonic은 약 25분으로 소개한다. 실제 녹음 시간도 연주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Doráti와 Minnesota Orchestra의 1954년 녹음은 약 22분 10초, Juanjo Mena와 BBC Philharmonic의 2017년 녹음은 23분 2초다.

편성

편성은 플루트 2(제 2 플루트는 피콜로 겸주), 오보에, 클라리넷 2, 바순, 호른 2, 트럼펫, 트롬본, 팀파니, 하프와 현악이다. 큰 관현악단보다 작지만, 각 악기를 단순한 배경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하프와 현악이 주제를 열고, 목관 ·금관 독주와 짝을 이룬 악기들이 차례로 전면에 나선다. Boosey의 편성표에는 현악 파트 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현악 ’으로만 표기한다.

주제가 악기 사이를 건너는 방식

Ginastera는 작품을 ‘원래 주제에 이어지는 열한 변주 ’로 설명했다. 다만 Chandos 안내서와 여러 공연 프로그램은 주제, 두 인터루드, 악기별 변주, 더블베이스의 주제 회상, 관현악 론도를 포함해 열두 구간을
차례로 적는다. 이는 열두 개의 독립 악장이라는 뜻이 아니다. 한 번도 끊기지 않는 흐름을 어떤 구간까지
변주로 셀지에 차이가 있는 셈이다.

첫 구간에서 첼로가 길게 노래하고 하프가 응답한다. LA Phil과 St. Louis Symphony는 하프의 음향을 기타의 열린 현 E–A–D–G–B–E와 연결한다. 이 설명은 아르헨티나 민요를 직접 인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익숙한 기타 조율의 울림을 관현악의 주제에 옮겨 놓았다는 해석이다. 뒤따르는 현악 인터루드는 독주 선율을 합주로 넓힌 다음, 플루트의 장난스러운 변주와 클라리넷의 스케르초를 지나 비올라의 극적인 변주로 무게중심을 이동한다
. New York Heritage의 프로그램 노트는 비올라 구간의 겹음 카덴차를 특징으로 짚는다.

중간부에서는 변주의 개념이 악기 간 관계로 넓어진다. 오보에와 바순은 카논으로 서로의 선율을 받아 이어 가고, 트럼펫과 트롬본은 리듬을 앞세운다. 이어 바이올린의 moto perpetuo 가 움직임을 끊임없이 이어 가며, 호른의 목가적 선율이 그 운동을 한 차례 가라앉힌다 . 각각은 하나의 악기를 돋보이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제를 대화 ·박동 ·지속운동 ·노래라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들려준다.

관악 인터루드 뒤에는 더블베이스가 처음의 주제를 낮은 음역에서 되돌려 놓는다. 첼로와 하프에서 시작한
선율이 더블베이스로 옮겨 온 뒤, 마지막 론도에서는 관현악 전체가 주도권을 나눈다. LA Phil은 종결부의
반복음과 추진력을 말람보 춤의 에너지에 빗댄다. Ginastera가 민속 선율 대신 자신의 주제와 리듬을
사용했다고 밝힌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 춤의 연상은 특정 곡조의 인용이라기보다 리듬과 음색이 만드는 성격으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아르헨티나적 성격을 만드는 재료

Ginastera는 작곡가 노트에서 이 변주곡에 ‘주관적 아르헨티나 성격 ’을 담으려 했으며, 민속 선율을 가져오는 대신 자신이 만든 주제와 리듬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말은 작품의 민족적 색채를 듣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 기타의 열린 현을 떠올리게 하는 하프 음향, 춤을 연상시키는 반복 리듬, 악기군마다 달라지는 음색이
아르헨티나적 분위기를 형성하지만 , 어느 한 민요의 선율을 그대로 옮겨 놓지는 않는다.

‘주관적 민족주의 ’는 작곡가가 1953년에 작품에 붙인 부제가 아니다. Music Academy of the West는 Ginastera가 스위스로 이주한 뒤 자신의 작품 세계를 세 시기로 나누어 회고했다고 설명한다. 이 곡은 그가
훗날 ‘주관적 민족주의 ’라고 부른 시기에 속한다. 다만 시대 구분 하나만으로 작품을 설명하기보다 , 작곡가가
직접 밝힌 작곡 원리와 악보의 음향적 특징을 함께 살피는 편이 낫다.

연주에서 드러나는 선택

클라리넷 변주는 곡의 독주적 성격이 연주자에게 요구하는 기술적 부담도 보여 준다. UNLV의 Thomas James Kmiecik은 오케스트라 오디션과 공연 자료를 다룬 논문에서 이 변주의 높은 음역과 까다로운 운지를 분석하고
, 실제 연주에서 클라리넷의 이조나 일부 음역 조정이 사용되어 온 사례를 정리한다. 1997년 The Clarinet의 “Symphonic Corner” 칼럼에서 David Niethamer는 이 변주의 어려운 곳에 제 2 클라리넷 주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인쇄된 파트만으로 단일한 표준 연주법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보다, 연주자들이
악기와 상황에 맞춰 해결해 온 구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녹음은 이 작품의 속도와 음향이 한 가지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려준다. Antal Doráti와 Minnesota Orchestra는 초연 이듬해인 1954년에 이 곡을 녹음했다. 이는 확인되는 초기 녹음 사례이지, 최초 녹음이라는
뜻은 아니다. Juanjo Mena와 BBC Philharmonic은 2017년에 녹음했고, Josep Pons와 Orquesta Ciudad de Granada의 음반은 2003년에 처음 발매됐다. MusicWeb International의 Nick Barnard는 Mena의 종결부를 빠르고 활기차다고 들은 반면, Pons 음반에서는 음향의 거리감과 색채가 더 자연스럽다고 평가했다. 이는 어느 한 판의 우열을 정하는 결론이라기보다 , 같은 론도가 지휘자의 템포와 녹음의 공간감에 따라 다른 표정을
얻는다는 한 평론가의 청취 기록이다.

각 구간은 독주자를 바꾸며 듣는 관점도 바꾼다. 첼로 선율은 다른 악기군에서 변형되고, 연주자의 기술적
선택과 녹음의 음향도 그 흐름에 영향을 준다. 마지막에 주제가 전체 악단의 론도로 바뀌면서 개별 변주가
하나의 관현악적 흐름으로 모인다.

주요 자료

Los Angeles Philharmonic, Variaciones concertantes: 위촉 ·초연, Ginastera의 작곡 시기,
주관적 민족주의, 편성 ·길이와 변주 순서.

Boosey & Hawkes, Variaciones Concertantes, Op. 23: 출판 ·대여, 1953년 초연, 실내 관현악
편성, 24분, 주제와 11개 변주 설명.

IRCAM, Variaciones concertantes: 1953년 작곡, 23분, 위촉 ·초연과 헌정 표기.

St. Louis Symphony Orchestra, Ginastera & Dvořák: 기타 열린 현 음향, 변주 순서, 직접 인용이 아닌 아르헨티나적 억양에 관한 해설.

New York Heritage, Ginastera 프로그램 자료: 변주별 독주 악기와 세부 순서.

Chandos, Ginastera: Orchestral Works, CHAN 10949 및 안내서: 작곡가의 헌정문, 번호 구간, Mena/BBC Philharmonic 녹음 정보.

CiNii Books, Variaciones concertantes: Hawkes Pocket Scores의 서지 정보.
Music Academy of the West, Ginastera 프로그램 노트: ‘주관적 아르헨티나 ’라는 작곡가의
진술과 후대의 시기 구분.
Thomas James Kmiecik, “Clarinet performance practices for Alberto Ginastera’s ‘Variaciones concertantes’”,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클라리넷 변주의 난도와 실연에서의 조정 사례.
The Clarinet 24/3 (1997), “Symphonic Corner”: 오케스트라 연주자의 클라리넷 변주 경험. Presto Music, Doráti/Minnesota Orchestra의 Mercury 녹음: 1954년 녹음 세션과 수록 시간. Nick Barnard, MusicWeb International의 CHAN 10949 평론: Mena와 Pons 녹음의 종결부 및 음향을 비교한 청취 평가.
Harmonia Mundi, Pons/Orquesta Ciudad de Granada 음반: 비교에 언급한 녹음의 음반 정보.